

이주희는 현재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감리교회(First United Methodist Church)의 오르가니스트로 재직 중입니다. 이곳에서 그녀는 1962년에 설치되고 2011년에 대대적으로 보수된 Schantz Opus 488 오르간으로 연주하고 있으며, 이 악기는 남캘리포니아 지역 교회들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악기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.

고향인 대한민국에서 오르간 전공으로 두 개의 학위를 취득한 이주희는 롯데콘서트홀, 예술의전당, 영산아트홀 등 주요 공연장에서 연주하였으며, 독일 거주 당시에도 여러 차례 솔로 리사이틀을 열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.

그녀는 역사적 오르간 연구에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, 다양한 기악 연주자 및 성악 앙상블과의 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. 또한, 유럽 전역에서 열리는 마스터클래스와 학술 컨퍼런스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학문적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.

이주희의 레퍼토리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바로크, 바흐와 모차르트, 독일 및 프랑스 낭만주의, 현대 음악, 그리고 한국 현대 작곡가들의 작품까지 아우르며,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자랑합니다.

현재 그녀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의 오르간 리사이틀 일정을 준비 중이며, 앞으로는 미국 전역은 물론 해외의 교회 및 콘서트홀에서도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.